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Peter Singer, Ethics in the Real World · Vol. 1 BIG QUESTIONS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Morality Pill · The Empathy Trap · Can Ethics Be Taught?
원서 PDF 29~36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권은 한 가지를 묻는다 –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약인가, 공감인가, 이성인가."

이 권은 사람이 왜, 어떻게 남을 돕고 옳은 일을 하는지 묻는 세 편을 묶었다. 「Are We Ready for a "Morality Pill"?」에서 저자는 다친 아이를 지나친 행인들과 낯선 이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나란히 놓고, 도덕적 행동의 차이가 뇌의 화학에 있다면 '도덕 알약'으로 행동을 바꾸는 일을 어떻게 볼지 묻는다. 「The Empathy Trap」은 공감이 오히려 우리를 불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폴 블룸의 주장을 소개하며 공감과 연민을 가르고 이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Can Ethics Be Taught?」는 이성이 정념의 노예라는 흄과 하이트의 견해를 검토한 뒤, 고기 먹기의 윤리를 토론한 대학생들의 고기 구매가 실제로 줄었다는 실험을 내놓는다. 세 편을 이어 읽으면 약 · 공감 · 이성 가운데 저자가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가 드러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세 편을 잇는 자리)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에세이 제목은 단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권의 세 편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감정은 옳은 일만큼 그른 일로도 이끌기에 윤리적 결정에서 이성이 결정적이다(33쪽 ¶5~¶7) / 뇌의 화학이 자연으로 정해지든 의학으로 정해지든 자유의 정도는 같다(30쪽 ¶6 ~ 31쪽 첫 줄) / 교실의 윤리적 추론이 학생들이 먹는 것을 바꿀 수 있다 – 두 번째 연구(35쪽 ¶6 ~ 36쪽 ¶1) / 공감에 반대하는 것은 연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33쪽 ¶3)
4~5	**밑줄 함축 의미**	far from the lens of a video camera / some people did the right thing / not far-fetched / the same objection / a darker side / cold, slimy, and unable to scream / One death is tragedy; a million is a statistic / numerical numbness / an inbuilt bias / the slave of the passions / the rider's job is to serve the elephant / post hoc rationalization / Perhaps. Yet … not entirely convinced
6	지칭 추론	they · their가 갇히지 않은 쥐와 실험자 사이를 오가는 29쪽 ¶7 ~ 30쪽 첫 줄 / it(30쪽 ¶4 = 약) · They too(30쪽 ¶5 = 범죄 가능성이 큰 사람들) / who(32쪽 ¶2 = 멕시코 · 중국 노동자) · He(32쪽 ¶3 = 트럼프) / she · he(33쪽 ¶3 = 타니아 싱어 · 리카르) / him(34쪽 ¶7 = 하이트) · They(35쪽 ¶3 = 대조군)
7~8	내용 일치·불일치	포산 2011 · 7분 · 런던 2004(29쪽 ¶1) / 밀그램 · 짐바르도 · 달리와 뱃슨(29쪽 ¶5) / 30마리 중 23마리(30쪽 첫 줄) / 편도체 · 옥시토신(30쪽 ¶3) / 리카르 · 타니아 싱어(33쪽 ¶3~¶4) / 1,143명 · 476명 · 약 6,000건 · 52→45%(35쪽 ¶3~¶5) / 51→42%(35쪽 ¶7 ~ 36쪽 첫 줄)
9~10	**어법**	as have others · knowing that · be prepared to V · if told · 전치사 + 관계대명사(about which · on whom) · 접속사 for · must lie in · It seems plausible that · Only then will we · that of · which is known to V · when swallowed · no matter how + 형용사 · either A or B · It is up to A to V · enable + O + to V · for whom should we · even worse off than … are · with + O + p.p. · than would have p.p. · be told to V · had been assessed as · To be against A is not to be against B · much less · lead + O + to V · one … the other · be to V · Among ~ are 도치 · reminiscent of · can't just A and B · nor are they · not entirely · than had ever been done · be made anonymous · did appear to · as far as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universal↔rare, voluntarily↔forcibly, reluctantly↔willingly, plausible↔implausible, stable↔volatile, far-fetched↔realistic, compatible↔incompatible, vivid↔dull, adverse↔beneficial, objective↔subjective, downplay↔emphasize, irrelevant↔relevant, supremacy↔inferiority, imprudent↔prudent, skeptical↔convinced, anecdotal↔systematic, darker↔brighter(32쪽 ¶3)
12	빈칸 추론	must lie in the rats themselves(30쪽 ¶1) / make no difference in how freely we act(30쪽 ¶7) / is in tension with(32쪽 ¶2) / large numbers numb the feelings(33쪽 ¶2) / ethical reasoning is powerless(35쪽 ¶1) / not dramatic, but … statistically significant(36쪽 ¶1)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문장 삽입	개인차와 뇌(30쪽 ¶1~¶3): 실험을 마지못해 인용하는 까닭 → 도울 준비의 연속선 → 상황 요인 · 도덕적 믿음 · 성향 차이 → Only then → 신장 기증자의 편도체 → 옥시토신
14	무관한 문장	공감이 엉뚱한 대상으로 향하는 대목(32쪽 ¶4~¶5: 새끼 물범 · 닭 · 로봇 · 물고기 · 백신)에 같은 권 다른 편의 사실(플라톤의 마차, 34쪽 ¶3)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포산 사건(29쪽 ¶1) → 영상과 런던 → 그러나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2~¶3) → 왜 어떤 이는 목숨을 거는가 · 밀그램과 짐바르도(¶4~¶5)
16	요약문 완성	공감이 불공정을 낳는 대기 명단 실험(33쪽 ¶1): 객관적이 되라 vs 아이의 느낌을 상상하라 → 4분의 3 vs 3분의 1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숫자 · 인물 · 뇌 부위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2011(포산) · 2004(런던) · 7분 · 30마리 중 23마리 · 1971(큐브릭의 영화) · 2016(『Against Empathy』) · 4분의 3 vs 3분의 1 · 99%(코끼리) · 2017(첫 실험) · 1,143명 · 476명 · 약 6,000건 · 52→45% · 51→42% · 2020 · 2021. 인물도 많다(밀그램 · 짐바르도 · 달리 · 뱃슨 · 버지스 · 큐브릭 · 오바마 · 블룸 · 클린턴 · 트럼프 · 스타인리 · 밸컴 · 리카르 · 타니아 싱어 · 플라톤 · 흄 · 하이트 · 슈비츠게벨 · 러스트 · 코클렛). 비슷한 숫자 쌍(52→45%와 51→42%, 2004와 2011, 1,143명과 476명)이 함정이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unpleasant ↔ pleasant, above ↔ below average, more ↔ less active, no change ↔ decline, without ↔ with the video). '~라고 해석한다'(interpret) · '그럴듯하다'(It seems plausible) · '~일 수도 있다'(It is possible) · '~할 수 있다'(may lead to)를 사실로 바꾼 선지, 블룸 · 흄 · 하이트의 견해를 저자(싱어)의 주장으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Morality Pill · The Empathy Trap · Can Ethics Be Taught?」 (29~36쪽)

논증형 세 편. ① 사례(포산의 행인 · 영웅) → 물음(왜 사람마다 다른가) → 실험(밀그램 · 짐바르도 · 쥐) → 개인차와 뇌 → 도덕 알약 → 반론(자유의지) → 저자의 답. ② 오바마의 공감론 → 블룸의 반대 → 공감의 그늘(선택적 · 불공정 · 숫자 무감각) → 공감 vs 연민 → 이성. ③ 물음 → 플라톤 vs 흄 · 하이트 → 반증처럼 보이는 연구 → 저자의 의심 → 두 실험 → 결론. 핵심 축은 **타고난 성향 vs 자유의지, 공감 vs 연민 · 이성, 감정의 우위(흄 · 하이트) vs 이성의 힘(저자).**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9 ¶1	사례	2011년 포산 · 두 살 여자아이 · 7분 동안 열두 명 넘게 지나침 · 두 번째 트럭 · 병원에서 사망 / 영상 → 공분 · 2004년 런던에서도
29 ¶2~¶3	대조 사례	그러나 사람은 아주 다르게도 행동 / 'hero saves' · 해마다 수백 명이 낯선 이에게 신장 기증 · 극단적 친절도 그 반대처럼 거의 보편적
29 ¶4~¶5	물음 · 실험	왜 어떤 이는 목숨을 거는가 / 밀그램 · 짐바르도 · 달리와 뱃슨(신학생 · 착한 사마리아인) · 뇌 연구 → 도덕 행동의 동력에 다가섰는가
29 ¶6~30 첫 줄	쥐 실험	놓친 점 = 옳은 일을 한 사람도 있음 / 시카고 대학(윤리적 유보) · 초콜릿보다 동료 · 공감으로 해석 · 30마리 중 23마리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30 ¶1~¶2	개인차	원인은 쥐 자신에게 · 사람도 연속선 위에 있을 법 / 상황 요인 · 도덕적 믿음 + 타고난 성향의 차이도 알아야 함
30 ¶3	뇌와 화학	신장 기증자의 편도체 = 평균보다 크고 더 활발 · 옥시토신(가능성) · 생화학 조건을 바꾸는 약
30 ¶4~¶5	도덕 알약	허황하지 않음 · 감옥 대신 약물 이식 장치 · 스마트 알약 / 범죄 가능성 선별 · 거부하면 위치 추적 장치(물음 · 가능성)
30 ¶6	반론	버지스의 『A Clockwork Orange』 · 큐브릭의 1971년 영화 · 자유의지를 빼앗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많은 사람의 주장)
30 ¶7~31 첫 줄	저자의 답	자연이 정했든 의학이 정했든 자유의 정도는 같음 · 양립하거나 애초에 자유의지가 없었거나 / 곧 새로운 선택에 직면
32 ¶1	통념 · 반대	오바마 = 공감이 부족하다 · 널리 퍼진 견해 / 2016년 폴 블룸 『Against Empathy』 = 충격
32 ¶2~¶3	누구에게 공감하나	클린턴의 패배(분석가들) · 미국 노동자 vs 멕시코 · 중국 노동자 / 트럼프 · 케이트 스타인리 · 어두운 면
32 ¶4~¶5	선택적 공감	큰 눈의 새끼 물범 > 닭 · 로봇 · 물고기(밸컴) / 백신 거부 · 질병 피해가 더 큼
33 ¶1~¶2	불공정 · 무감각	대기 명단 실험 4분의 3 vs 3분의 1 / 한 명은 비극, 백만은 통계 · Decision Research · 숫자 무감각 · 더 큰 그림
33 ¶3~¶4	공감 vs 연민	리카르 · 타니아 싱어 · 연민 명상 중 공감 영역 활동 없음 · 공감 = 불쾌 · 지침 / 비명상가 훈련 · 더 친절한 행동 가능성
33 ¶5~¶7	이성	인지적 공감 · 심리학이 이성을 낮춤 · 무관한 요인 연구만 주목 = 내재된 편향 / 저자: 감정은 옳고 그름 모두로 · 이성이 결정적
34 ¶1~¶5	물음 · 고전	윤리 수업이 행동을 바꾸는가 · 이성의 역할 / 플라톤의 마차(이성의 우위) vs 흄(이성 = 정념의 노예 · 차분한 정념)
34 ¶6~35 ¶1	현대의 반론	하이트 = 코끼리와 기수 · 99% · 사후 합리화 · 교실 교육에 회의 / 슈비츠게벨 · 러스트 = 윤리학 교수도 더 낫지 않음
35 ¶2~¶5	의심 · 실험 1	일화적 증거 · 채식 · 기부 · 진로 / 2017 · 1,143명 · 식당 카드 476명 약 6,000건 · 52→45% · 기부 집단 변화 없음
35 ¶6~36 ¶1	실험 2 · 결론	2020 『Cognition』 · 영상은 절반만 · 2021 · 51→42% · 영상 없이도 변화 · 코로나19 / 극적이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도덕적 행동의 차이	상황 요인(밀그램 · 짐바르도 · 달리와 뱃슨)	상황 요인에 더해 사람마다 다른 비교적 안정된 성향(유전자에 뿌리를 둘 수도)
쥐 실험의 결과	쥐에게 공감이 있다(실험자들의 해석)	그렇다면 쥐마다 다르다는 것도 보여 줌(30마리 중 23마리)
도덕 알약	자유의지를 빼앗으므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A Clockwork Orange』 논쟁의 많은 사람)	뇌의 화학이 자연으로 정해졌든 의학으로 정해졌든 자유의 정도는 같다(저자)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공감의 평가	공감이 부족하니 더 키워야 한다(오바마 · 널리 퍼진 견해)	공감은 우리를 불공정하게도 만든다(블룸 · 저자도 같은 쪽)
누구에게 공감하나	미국 노동자 · 러스트 벨트 유권자(클린턴의 패배 분석)	저자가 짚는 문제 — 일자리가 없으면 더 어려워질 멕시코 · 중국 노동자에 대한 공감과 부딪침(긴장 관계)
공감을 끄는 대상	큰 눈의 새끼 물범 ·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로봇	훨씬 큰 고통을 겪는 닭 ·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가 많은 물고기(밸컴)
백신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믿어지는 소수의 아이에 대한 공감 → 접종 거부	저자가 짚는 문제 — 병으로 피해를 입는 아이가 부작용을 겪었을 아이보다 훨씬 많음
대기 명단 실험	아이의 느낌을 상상하라 → 4분의 3이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	최대한 객관적이 되라 → 3분의 1만 요청 — 저자가 짚는 문제: 공감은 불공정을 낳을 수 있음
공감 vs 연민	공감 = 남의 고통을 함께 느낌 · 리카르에게 불쾌하고 지치는 일	연민 = 따뜻하고 긍정적인 상태 · 강한 친사회적 동기(리카르) · 인지적 공감에 가까움
이성의 자리	이성은 정념의 노예(흄) · 기수는 코끼리를 섬긴다(하이트) · 심리학은 이성을 낮춤	윤리적 결정에서 이성이 결정적 역할(저자) · 플라톤도 이성의 우위를 말함
윤리 수업의 효과	윤리학 교수도 더 윤리적이지 않다(슈비츠게벨 · 러스트) → 추론은 무력한가	고기 구매 52→45% · 51→42% · 극적이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저자)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gata Sagan	「Are We Ready for a "Morality Pill"?」의 공저자(원서 표기 with Agata Sagan)
2011 · Foshan	중국 포산 · **두 살** 여자아이가 승합차(van)에 치임 · 운전자는 멈추지 않음 · **7분** 동안 **열두 명 넘게**(more than a dozen) 걷거나 자전거로 지나침 · **두 번째 트럭**이 또 침 · 한 여성이 길가로 옮김 · 병원에서 사망 · 방송 · 온라인 공개 → 공분
2004 · London	비슷한 일이 **런던**에서 · 카메라 렌즈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다른 일들이
hero saves	다가오는 기차 · 빠른 물살 · 사나운 불길을 무릅쓴 행인 / 해마다 세계에서 **수백 명**이 낯선 이에게 신장 하나를 기증
Milgram · Zimbardo	**1960년대와 70년대 초** ·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 대부분이 무고한 사람에게 스스로 큰 해를 끼칠 것임을 **시사**(suggested)
Darley · Batson	같은 시기 ·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강연하러 가던 **일부** 신학생도 늦었다는 말을 들으면 길가에 신음하며 누운 낯선 이를 지나침
시카고 대학 쥐 실험	저자들은 이 실험에 **심각한 윤리적 유보** · 우리를 함께 쓰는 두 마리 · 밖에서만 열리는 관 · 초콜릿을 다 먹을 수 있어도 대개 동료부터 · 쥐의 공감 = 실험자들의 **해석**
23 of 30	갇힌 동료를 풀어 준 쥐는 **30마리 중 23마리**뿐 → 쥐마다 다름 · 차이의 원인은 쥐 자신에게
amygdala	낯선 이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람 = 편도체가 평균보다 **크고**, 고통받는 이를 보면 보통 사람보다 **더 활발**
oxytocin	편도체가 옥시토신에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It is possible) · 옥시토신 = 낯선 이를 포함해 남을 돌보게 한다고 **알려짐**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morality pill	남을 도울 가능성을 높이는 약 · 허황하지 않음 / 감옥 대신 약물 방출 이식 장치 · 삼키면 데이터를 보내는 센서가 든 스마트(디지털) 알약 / 범죄 가능성 선별 · 거부하면 위치 추적 장치 — 모두 **물음 · 가능성**(could)
A Clockwork Orange	**50년 전** 앤서니 버지스의 미래 소설 · 사악한 갱 두목이 폭력을 쓸 수 없게 되는 처치를 받음 / 스탠리 큐브릭의 **1971년** 영화 → 자유의지 논쟁
Barack Obama	대통령 당선 직후 한 소녀에게 "오늘날 세상에는 공감이 부족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너희 세대의 몫"
Paul Bloom	**예일** 대학 심리학자 · **2016년** 『Against Empathy』 · 공감과 연민의 차이를 리카르에게서 배움 · 이성의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봄
Clinton · Trump	분석가들 = 클린턴이 백인 미국인, 특히 러스트 벨트 유권자에게 공감하지 못해 졌다고 **보았다** / 트럼프 =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살해된 **Kate Steinle** 사건으로 반이민 정책 지지를 부추김(저자의 서술)
Jonathan Balcombe	『What a Fish Knows』 · 물고기도 새나 포유류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가 많다고 주장
대기 명단 실험	말기 환자인 아이의 인터뷰 · 상상하라는 집단의 **4분의 3** vs 객관적이 되라는 집단의 **3분의 1**만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
Decision Research	**오리건**의 비영리 단체 · ArithmeticofCompassion.org · '숫자 무감각' 없이 대규모 문제를 전하는 능력을 키움
Ricard · Tania Singer	Matthieu Ricard = 불교 승려 · **때로**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림 / Tania Singer = 신경과학자(저자와 친척 아님) · 연민 명상 중 공감 영역 활동 없음 · 비명상가 훈련
Plato · Hume	플라톤 『Phaedrus』 = 두 말이 끄는 마차 · 조화는 이성의 우위 아래 / **18세기** 흄 = 이성은 "정념의 노예" · 동료 감정(공감) · 장기적 이익에 대한 관심도 정념(차분한 정념)
Jonathan Haidt	『The Happiness Hypothesis』 · 『The Righteous Mind』 · 사회적 직관주의 · 기수(의식적 추론)가 코끼리(나머지 **99%**, 주로 감정과 직관)를 섬김 · 교실의 직접 교육에 회의
Schwitzgebel · Rust	Eric Schwitzgebel(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 Joshua Rust(스테트슨 대학) · 윤리학 교수도 다른 철학 교수 · 철학 밖 교수보다 더 윤리적이지 않음
실험 1	**2017년** 슈비츠게벨의 제안 · Brad Cokelet(캔자스 대학) · **1,143명** 참여 · 채식 옹호 논문 + 소집단 토론(영상은 선택) vs 대조군(기부) · **476명**의 약 **6,000건**(익명) · **52% → 45%** · 몇 주 유지 · 2020 『Cognition』
실험 2	영상은 무작위로 고른 **절반**에게만 · 2021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 **51% → 42%** · 영상을 본 집단에서 더 뚜렷해 **보였지만** 영상 없이도 변화 · 코로나19로 지속 기간 조사 미완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thics in the Real World · Morality Pill · The Empathy Trap · Can Ethics Be Taught? (원서 PDF 29~36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1 사례와 물음 – 지나친 사람들, 목숨을 건 사람들 29쪽 ¶1 ~ 30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29쪽 ¶1 ~ 30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9쪽 ¶1 첫 문장	In 2011, in Foshan, China, a two-year-old girl was run over by a van	숫자 · 장소 – 서답형 1순위
★	29쪽 ¶1 셋째 문장	Over the next seven minutes, more than a dozen people walked or bicycled past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29쪽 ¶1 일곱째 문장	was captured on video and caused an uproar when it was shown	수동 · 능동 동사 병렬
▲	29쪽 ¶1 여덟째 문장	A similar event occurred in London in 2004, as have others	as + 대동사 + 주어 도치
◆	29쪽 ¶1 여덟째 문장	far from the lens of a video camera	밑줄 의미: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곳에서
◆	29쪽 ¶2	Yet people can, and often do, behave in very different ways.	전환 – 순서 배열의 고리
▲	29쪽 ¶3 둘째 문장	knowing that their act can save a life	분사구문(동시 상황)
●	29쪽 ¶3 셋째 문장	are, like their opposites, nearly universal	어휘 반전: universal ↔ rare
▲	29쪽 ¶4	Why are some people prepared to risk their lives … when others won't even stop	be prepared to V / stop to V
★	29쪽 ¶5 둘째 문장	experiments by Stanley Milgram and Philip Zimbardo suggested that most of us would	인물 · '시사' – 단정 선지 함정
▲	29쪽 ¶5 셋째 문장	would, if told that they were running late, walk past a stranger lying moaning	if + 과거분사 / 분사 후치
◆	29쪽 ¶6 첫 문장	some people did the right thing	밑줄 의미: 논의가 놓친 점 – 글의 방향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9쪽 ¶6 둘째 문장	An experiment (about which we have serious ethical reservations)	전치사 + 관계대명사
▲	29쪽 ¶7 첫 문장	a tube that could be opened only from the outside	조동사 수동 + only
◆	29쪽 ¶7 셋째 문장 ~ 30쪽 첫 줄	they mostly preferred to free their cage-mate ... they have also demonstrated	지칭: they = 쥐 / 실험자
★	30쪽 첫 줄	for only 23 of 30 rats freed their trapped companions	숫자 — 서답형 1순위

내용

2011년 중국 포산에서 두 살 난 여자아이가 승합차에 치였다.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 뒤 7분 동안 열두 명이 넘는 사람이 다친 아이 곁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두 번째 트럭이 아이를 또 치었다. 마침내 한 여성이 아이를 길가로 옮겼고 아이의 어머니가 왔지만, 아이는 병원에서 숨졌다. 이 장면은 모두 영상에 담겼고, 텔레비전 방송과 온라인에 공개되자 큰 공분을 일으켰다. 2004년 런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카메라 렌즈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났다. 그러나 사람은 아주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자주 그렇게 행동한다. 'hero saves'라는 말로 뉴스를 찾으면 다가오는 기차, 빠른 물살, 사나운 불길을 무릅쓰고 낯선 이를 구한 행인들의 이야기가 어김없이 나온다. 해마다 세계에서 수백 명이, 그 일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 신장 하나를 낯선 이에게 기증한다. 극단적인 친절과 책임감, 연민은 그 반대 행동과 마찬가지로 거의 어디에나 있다. 왜 어떤 사람은 낯선 이를 도우려고 목숨까지 거는데, 어떤 사람은 응급 전화를 걸려고 멈추지도 않는가.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런 물음을 탐구해 왔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 스탠리 밀그램과 필립 짐바르도의 유명한 실험은 특정한 상황에서라면 우리 대부분이 무고한 사람에게 스스로 큰 해를 끼칠 것임을 시사했다. 같은 시기에 존 달리와 C. 대니얼 뱃슨은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관해 강연하러 가던 신학생 가운데 일부조차 늦었다는 말을 들으면 길가에 누워 신음하는 낯선 이를 그냥 지나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최근 연구는 사람이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알려 주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의 도덕적 행동을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는가. 저자는 이 실험들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놓친 점이 있다고 말한다. 옳은 일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한 실험(저자들은 이 실험에 심각한 윤리적 유보를 품고 있다)이 그 까닭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듯하다. 연구자들은 우리를 함께 쓰는 쥐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밖에서만 열 수 있는 관에 가두었다. 갇히지 않은 쥐는 대개 문을 열려고 애썼고 결국 열어 냈다. 갇힌 쥐를 풀어 주기 전에 초콜릿을 모두 먹어 치울 수 있을 때에도, 쥐들은 대부분 동료를 풀어 주는 쪽을 택했다. 실험자들은 이 결과를 쥐에게 공감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다면 실험자들이 쥐마다 다르다는 것도 보여 준 셈이라고 지적한다. 갇힌 동료를 풀어 준 쥐는 30마리 가운데 23마리뿐이었기 때문이다.

어법

- **A similar event occurred in London in 2004, as have others, far from the lens of a video camera** : as + 대동사 + 주어 도치 = 다른 일들도 그래 왔듯이(as others have occurred). 앞 동사는 과거(occurred)지만 대동사는 have: 지금까지 일어나 온 일을 현재완료로 받는다. far from = ~에서 멀리 떨어진.
- **Each year, around the world, hundreds of people donate one of their kidneys to a stranger, knowing that their act can save a life** : hundreds of + 복수 명사 = 수백의(주어 people → donate). one of + 복수 명사(kidneys). knowing that ~ = 동시 상황의 분사구문(~을 알면서).
- **Acts of extreme kindness, responsibility, and compassion are, like their opposites, nearly universal** : 주어 Acts(복수) → are. 수식어 of ~가 길어도 동사는 머리 명사에 맞춘다. like their opposites = 삽입(그 반대 행동처럼). their = 극단적 친절 · 책임감 · 연민의 행동.

- **Why are some people prepared to risk their lives to help a stranger when others won't even stop to dial an emergency number?** : be prepared to V = 기꺼이 ~하려 하다. some ... others = 어떤 사람은 … 다른 사람은. to help = 목적의 to부정사. stop to V = ~하려고 멈추다(stop -ing = ~하기를 그만두다와 구별).
- **even some seminary students on their way to give a lecture ... would, if told that they were running late, walk past a stranger lying moaning beside the path** : if told = if they were told(접속사 뒤 주어 + be동사 생략). 조동사 would와 원형 walk 사이에 조건절 삽입. lying =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현재분사, moaning = lie에 이어지는 분사 보어(신음하며 누운).
- **An experiment (about which we have serious ethical reservation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seems to shed new light on why** : 전치사 + 관계대명사: have reservations about the experiment에서 about이 which 앞으로. seems to V = ~하는 듯하다(단정 아님). on why = 전치사 뒤 의문사(why some people did the right thing에서 뒷부분 생략).
- **Even when the free rats could eat up all of a quantity of chocolate before freeing the trapped rat, they mostly preferred to free their cage-mate** : even when = ~할 때조차. before + 동명사 freeing. prefer to V = ~하는 쪽을 택하다. the trapped rat = 과거분사 전치 수식(갇힌).
- **But if that is the case, they have also demonstrated that individual rats vary, for only 23 of 30 rats freed their trapped companions** : if that is the case = 그것이 사실이라면(앞 문장의 해석을 받음). they = 실험자들. 접속사 for = 왜냐하면(앞 판단의 근거; 문장 맨 앞에 쓰지 않는다). only 23 of 30 = 30마리 중 23마리뿐.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un over	(차가) 치다	hit	—
uproar	소동, 공분	outcry	calm
routinely	어김없이, 늘	regularly	rarely
bystander	행인, 구경꾼	onlooker	participant
brave (v.)	무릅쓰다	face	avoid
compassion	연민	sympathy	indifference
universal	보편적인, 어디에나 있는	widespread	rare
voluntarily	자발적으로	willingly	forcibly
innocent	무고한	blameless	guilty
parable	비유, 우화	allegory	—
moan (v.)	신음하다	groan	—
reservation	유보, 의구심	doubt	confidence
shed light on	~을 밝히다	illuminate	obscure
interpret	해석하다	construe	—

내용 일치 2011년 = 중국 포산 · 두 살 여자아이 · 승합차 운전자는 멈추지 않음 · 7분 · 열두 명 넘게 지나침 · 두 번째 트럭 · 한 여성이 길가로 · 병원에서 사망 · 영상 공개 → 공분 · 2004년 런던에서도 비슷한 일 · 해마다 수백 명이 낯선 이에게 신장 기증 · 밀그램 · 짐바르도 = 1960년대 ~ 70년대 초, 대부분이 해를 끼칠 것임을 '시사' · 달리와 뱃슨 = '일부' 신학생, 늦었다는 말을 들은 경우 · 쥐 실험 = 시카고 대학 · 저자들의 심각한 윤리적 유보 · 쥐의 공감 = 실험자들의 '해석' · 23/30. **지칭** 29쪽 ¶1 her(ran over her · pulled her) = 두 살 여자아이 / ¶3 their act =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들의 / their opposites = 극단적 친절 ·

책임감 · 연민의 / ¶5 they were running late = 신학생들 / ¶7 they mostly preferred = 갇히지 않은 쥐들 / their findings = 실험자들의 / 30쪽 첫 줄 they have also demonstrated = 실험자들.

> **한 줄 요약** 다친 아이를 지나친 행인들과 낯선 이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차이를 묻는 저자는, 동료를 먼저 풀어준 쥐 실험이 공감뿐 아니라 쥐마다 다르다는 것(30마리 중 23마리)도 보여 준다고 지적한다.

1-2 개인차와 도덕 알약, 자유의지라는 반론과 저자의 답 30쪽 ¶1 ~ 31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30쪽 ¶1 ~ 31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0쪽 ¶1 첫 문장	such experiments—and many that cause even more severe stress …—are still continuing	대시 삽입 · 복수 주어 + are
★	30쪽 ¶1 둘째 문장	the causes of the difference … must lie in the rats themselves	빈칸 후보 — 원인은 개체 안에
●	30쪽 ¶1 둘째 문장	We refer to this one reluctantly	어휘 반전: reluctantly ↔ willingly
▲	30쪽 ¶1 셋째 문장	It seems plausible that humans, like rats, are spread along a continuum	가주어 It + that절 · 추측
★	30쪽 ¶1 넷째 문장	relatively stable differences (perhaps rooted in our genes)	내용 일치 — perhaps(단정 금지)
▲	30쪽 ¶2 둘째 문장	Only then will we gain a proper understanding	Only + 부사 문두 → 도치
★	30쪽 ¶3 첫 문장	their amygdalas are above average size and … more active than that of the average person	내용 일치 · 서답형 · that of
▲	30쪽 ¶3 둘째 문장	oxytocin, which is known to motivate care for others, including strangers	계속적 which + be known to V
◆	30쪽 ¶4 첫 문장	Hence the idea of a "morality pill" … is not far-fetched	밑줄 의미 · 결론의 Hence
▲	30쪽 ¶4 넷째 문장	a sensor that transmits data when swallowed	when + 과거분사(주어 · be 생략)
◆	30쪽 ¶5 둘째 문장	They too could be offered a drug	지칭: They = 범죄 가능성이 큰 사람들
★	30쪽 ¶6 첫~둘째 문장	Anthony Burgess wrote A Clockwork Orange … Stanley Kubrick's 1971 movie	인물 · 연도
▲	30쪽 ¶6 둘째 문장	no matter how gruesome the violence that would thereby be prevented	no matter how + 형용사 + 주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0쪽 ¶6 셋째 문장	would encounter the same objection	밑줄 의미: 자유의지를 빼앗는다는 반론
★	30쪽 ¶7 첫 문장	will make no difference in how freely we act	요지 · 빈칸 1순위
▲	30쪽 ¶7 둘째 문장	either such differences are compatible with free will, or they are evidence that	either A or B · 동격 that

내용

저자는 이런 실험이, 그리고 동물에게 더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많은 실험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래도 이 실험을 마지못해 언급하는 까닭은, 쥐들의 행동 차이를 낳은 원인이 쥐 자신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실험이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이다. 저자는 사람도 쥐처럼 남을 도울 준비가 된 정도의 연속선 위에 퍼져 있다는 생각이 그럴듯하다고 본다. 사이코패스 같은 비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대다수 사람들 사이의 비교적 안정된 차이(어쩌면 유전자에 뿌리를 둔 차이)에 대해서도 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 요인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도덕적 믿음도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마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성향이 그저 다르다면 이 차이에 대해서도 더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도덕적 행동이 왜 사람마다 그토록 다른지,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낯선 이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람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이들의 편도체는 평균보다 크고,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 보통 사람보다 더 활발했다. 편도체가 옥시토신에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옥시토신은 낯선 이를 포함한 남을 돌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화학적 조건과 기분 · 행동을 잇는 다른 연구도 많고, 행동을 바꾸려고 이런 생화학적 요인을 조절하는 약도 있다. 그러니 남을 도울 가능성을 높이는 '도덕 알약'이라는 생각은 허황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 약을 먹기로 할까? 범죄자에게 감옥 대신, 남을 해칠 가능성을 낮추는 약물 방출 이식 장치를 고를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약을 확실히 먹게 하려면, 삼키면 데이터를 보내는 센서가 든 이른바 스마트 알약(디지털 알약)과 함께 쓸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을 가려내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들에게도 약을 권하고, 거부하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위치 추적 장치를 차게 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들킨다는 것을 알게 할 수도 있다. 50년 전 앤서니 버지스는 폭력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처치를 받는 사악한 갱 두목을 그린 미래 소설 『A Clockwork Orange』를 썼다. 스탠리 큐브릭이 1971년에 만든 영화는 논쟁을 불렀고, 많은 사람이 그로써 막을 수 있는 폭력이 아무리 끔찍해도 누군가의 자유의지를 빼앗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덕 알약을 개발하자는 제안도 틀림없이 같은 반론에 부딪힐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뇌의 화학이 실제로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면, 그 균형이 자연스럽게 정해졌든 의학적 개입으로 정해졌든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하는지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행동할지 예측하는 데 쓸 수 있는 생화학적 차이가 이미 있다면, 그런 차이는 자유의지와 양립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부 윤리적 행동에 관한 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애초에 자유의지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거다. 어느 쪽이든, 자유의지가 있든 없든 우리는 머지않아 행동을 더 낫게 바꾸는 방법을 두고 새로운 선택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어법

- **We refer to this one reluctantly, because it does show clearly that the causes of the difference in the behavior of the rats must lie in the rats themselves** : this one = this experiment(one = 앞의 명사 대신). does show = 강조의 do(분명히 보여 준다). must = ~임이 틀림없다(추론). themselves = 강조 재귀대명사(바로 쥐 자신).
- **It seems plausible that humans, like rats, are spread along a continuum of readiness to help others** : 가주어 It + seems + 형용사 + 진주어 that절(~라는 것이 그럴듯해 보인다 → 저자의 추측). like rats = 삽입. be spread along = ~을 따라 퍼져 있다. readiness to V = ~하려는 준비.

- **Only then will we gain a proper understanding of our moral behavior, including why it varies so much from person to person and whether there is anything we can do about it** : Only + 부사(then)가 문장 앞 → 조동사 + 주어 도치(will we gain). 변형 → Only then we will gain은 오답. including 뒤 간접의문문 두 개(why + S + V, whether + S + V)가 and로 병렬.
- **their amygdalas are above average size and, when they see someone in distress, more active than that of the average person** : are 뒤 보어 두 개(above average size / more active)가 and로 병렬, 그 사이에 when절 삽입. that of = the amygdala of: 비교 대상을 맞추려고 반복되는 명사 대신 쓰는 that(뒤가 the average person 한 사람이라 단수).
- **It is possible that the amygdala is responding to oxytocin, which is known to motivate care for others, including strangers** : It is possible that = ~일 수도 있다(가능성 — 사실 단정 아님). which = 계속적 용법(oxytocin 보충). be known to V = ~한다고 알려져 있다. including = ~을 포함하여(전치사).
- **To ensure that they take the drug, it could be combined with a so-called smart pill or digital pill containing a sensor that transmits data when swallowed** : To ensure = 목적의 to부정사. they = 범죄자들, it = the drug. containing ~ = 현재분사 후치.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sensor → transmits). when swallowed = when it is swallowed(주어 · be동사 생략).
- **many argued that we could never be justified in depriving someone of his free will, no matter how gruesome the violence that would thereby be prevented** : be justified in -ing = ~하는 것이 정당하다. deprive A of B = A에게서 B를 빼앗다. no matter how + 형용사 + 주어(be동사 생략) = 아무리 ~하더라도. thereby = 그로써.
- **If there are already biochemical differences between us that can be used to predict how ethically we will act, then either such differences are compatible with free will, or they are evidence that ... none of us have ever had free will anyway** : that = differences를 꾸미는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와 떨어져 있음). how ethically we will act = 간접의문문(how + 부사 + S + V). either A or B = A이거나 B이거나. evidence that = 동격 that절. none of us + 복수 동사 hav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luctantly	마지못해	unwillingly	willingly
plausible	그럴듯한	credible	implausible
continuum	연속체	spectrum	—
abnormal	비정상적인	atypical	normal
stable	안정된	steady	volatile
predisposition	성향, 경향	inclination	—
in distress	고통에 빠진	suffering	—
far-fetched	억지스러운, 허황한	unlikely	realistic
implant (n.)	이식 장치	device	—
screen (v.)	선별하다, 가려내다	vet	—
vicious	사악한	brutal	gentle
gruesome	끔찍한	horrific	pleasant
intervention	개입	treatment	—
compatible	양립할 수 있는	consistent	incompatible

내용 일치 쥐 실험을 언급하는 태도 = '마지못해'(reluctantly) · 원인은 쥐 자신에게 · 사람도 연속선 위에 있다 = '그럴듯하다'(저자의 추측) · 안정된 차이가 유전자에 뿌리를 둔다 = '어쩌면'(perhaps) · 상황 요인 = 의심할 여지없이 큰 차이 · 도덕적 믿음 = '그럴지도'(perhaps) · 신장 기증자의 편도체 = 평균보다 크고 더 활발 · 옥시토신에 반응 = '가능성'(It is possible) · 도덕 알약 · 이식 장치 · 위치 추적 = 저자가 던진 물음과 가능성(could) · 『A Clockwork Orange』 = 50년 전 버지스 · 영화 = 큐브릭 1971년 · 자유의지를 빼앗을 수 없다 = 많은 사람의 주장(저자의 주장이 아님). **밑줄 의미** not far-fetched = 남을 돕게 만드는 약이 허황한 공상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는 생각이라는 뜻 / the same objection = 『A Clockwork Orange』 논쟁에서 나온 '자유의지를 빼앗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론 / make no difference in how freely we act = 뇌의 화학이 자연으로 정해지든 약으로 정해지든 자유의 정도는 같다는 저자의 답 / 30쪽 ¶5 They too =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

> **한 줄 요약** 남을 돕는 성향이 사람마다 다르고 뇌의 화학과 이어져 있다면 '도덕 알약'은 허황하지 않으며, 자유의지를 빼앗는다는 반론에 저자는 뇌의 화학이 자연으로 정해지든 의학으로 정해지든 자유의 정도는 같다고 답한다.

1-3 통념에 맞선 반대 — 공감의 어두운 면 32쪽 ¶1 ~ ¶5

원문 위치 원서 32쪽 ¶1 ~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2쪽 ¶1 첫 문장	"We don't have enough empathy in our world today, and it is up to your generation to change that."	통념 — 오바마의 말
▲	32쪽 ¶1 첫 문장	it is up to your generation to change that	It is up to A to V
★	32쪽 ¶1 둘째 문장	the title of a 2016 book, Against Empathy, by Yale University psychologist Paul Bloom, came as a shock	숫자 · 인물 — 서답형 1순위
▲	32쪽 ¶1 셋째 문장	something that enables us to put ourselves in others' shoes	enable + O + to V / 관용구
▲	32쪽 ¶2 첫 문장	for whom should we have empathy?	전치사 + 의문사 문두
★	32쪽 ¶2 둘째 문장	analysts were suggesting that Hillary Clinton lost the election because she lacked empathy	분석가들의 견해 — 단정 금지
★	32쪽 ¶2 셋째 문장	empathy for American workers is in tension with empathy for workers in Mexico and China	빈칸 · 요지 후보
▲	32쪽 ¶2 셋째 문장	who would be even worse off without jobs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are	비교급 강조 even + 대동사 are
◆	32쪽 ¶3 둘째 문장	it also has a darker side	밑줄 의미 · 어휘 반전 darker ↔ brighter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2쪽 ¶3 셋째 문장	made use of the tragic murder of Kate Steinle by an undocumented immigrant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32쪽 ¶3 넷째 문장	any similarly vivid portrayals	어휘 반전: vivid ↔ dull
▲	32쪽 ¶4 첫 문장	chickens, on whom we inflict vastly more suffering	전치사 + 관계대명사 whom
▲	32쪽 ¶4 둘째 문장	robots that they know can feel nothing at all	관계대명사 + 삽입절(they know)
◆	32쪽 ¶4 셋째 문장	cold, slimy, and unable to scream	밑줄 의미: 공감을 부르지 못하는 겉모습
★	32쪽 ¶4 셋째 문장	as Jonathan Balcombe argues in What a Fish Knows	인물 · 책 — 밸컴의 주장
▲	32쪽 ¶5 둘째 문장	with many more affected, sometimes fatally, by the disease than would have suffered	with + O + p.p. · than + would have p.p.

내용

버락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한 소녀에게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 공감이 부족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너희 세대의 몫"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널리 퍼진 견해를 말한 것이고, 그래서 예일 대학 심리학자 폴 블룸이 2016년에 낸 책의 제목『Against Empathy』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남의 입장이 되어 그가 느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에 어떻게 반대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다른 물음을 던져 볼 수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 공감해야 하는가? 도널드 트럼프가 오바마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던 무렵, 분석가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백인 미국인, 특히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러스트 벨트 유권자에게 공감하지 못해 선거에서 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문제는 미국 노동자에 대한 공감이 멕시코와 중국 노동자에 대한 공감과 부딪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미국의 노동자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사람들이다. 공감은 우리가 공감하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만든다.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공감에는 더 어두운 면도 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가 케이트 스타인리를 살해한 비극을 이용해 반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를 부추겼다. 물론 그는 낯선 이의 목숨을 구한 서류 미비 이민자를 그만큼 생생하게 그려 보이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보도되었는데도 말이다. 새끼 물범처럼 크고 둥근 눈을 가진 동물은 닭보다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우리가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기는 쪽은 닭이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로봇조차 '해치기'를 꺼릴 수 있다. 반면 차갑고 미끈거리며 비명을 지르지 못하는 물고기는 동정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조너선 밸컴이『What a Fish Knows』에서 주장하듯 물고기도 새나 포유류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가 많은데도 그렇다. 마찬가지로 백신에 해를 입은, 또는 입었다고 믿어지는 소수의 아이들에 대한 공감이 위험한 병을 막는 아이들의 예방 접종에 대한 대중의 저항을 주로 이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부모가 아이에게 예방 접종을 시키지 않고, 수백 명의 아이가 병에 걸린다. 그 병으로 피해를 입는,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아이는 백신의 부작용을 겪었을 아이보다 훨씬 많다.

어법

- **We don't have enough empathy in our world today, and it is up to your generation to change that** : It is up to A to V = ~하는 것은 A의 몫(책임)이다. 가주어 it + 진주어 to change. that = 공감이 부족한 상태.
- **How can anyone be against something that enables us to put ourselves in others' shoes and feel what they feel?** : 수사의문문(아무도 반대할 수 없다는 뜻). enable + O + to V = O가 ~할 수 있게 하다 — to 뒤 put과 feel이 and로 병렬. put oneself in others' shoes = 남의 입장이 되어 보다. what they feel = 관계대명사 what절(목적어).

- **To answer that question, we might ask another: for whom should we have empathy?** : another = another question. 콜론 뒤 = 직접의문문: 전치사 + 의문사(for whom)가 문장 앞, 그 뒤 조동사 + 주어 도치(should we have). have empathy for = ~에게 공감하다.
- **The problem is that empathy for American workers is in tension with empathy for workers in Mexico and China, who would be even worse off without jobs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are** : The problem is that = 문제는 ~라는 것이다(보어 that절). be in tension with = ~와 긴장 관계에 있다. who = 계속적(멕시코 · 중국 노동자). even = 비교급 강조. without jobs = 가정의 조건 → would. than ... are = 앞 서술을 받는 대동사.
- **Trump, in his campaign speeches, made use of the tragic murder of Kate Steinle by an undocumented immigrant to stoke support for his anti-immigrant policies** : 주어 Trump와 동사 made use of 사이에 전치사구 삽입. make use of = ~을 이용하다. the murder of A by B = B가 A를 살해한 일(of = 대상, by = 행위자). to stoke = 목적의 to부정사.
- **Animals with big round eyes, like baby seals, arouse more empathy than chickens, on whom we inflict vastly more suffering** : 주어 Animals(복수) → arouse. on whom = 계속적 용법의 전치사 + 관계대명사(inflict suffering on chickens에서 on이 앞으로). 전치사 뒤의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vastly = 비교급 more 강조.
- **People can even be reluctant to "harm" robots that they know can feel nothing at all** : be reluctant to V = ~하기를 꺼리다. that = can feel의 주어인 주격 관계대명사, they know = 삽입절. 관계대명사가 이미 주어이므로 뒤에 주어를 다시 쓰지 않는다. nothing at all = 전혀 아무것도 ~ 않다.
- **hundreds of children become ill, with many more affected, sometimes fatally, by the disease than would have suffered adverse effects from the vaccine** : with + 명사(many more) + 과거분사(affected) = 부대상황(그리고 훨씬 많은 아이가 피해를 입은 채). sometimes fatally = 삽입. than would have suffered = 주어 없이 동사가 바로 오는 비교절(than이 주어 역할을 겸함). would have p.p. = (접종했다면) 겪었을 것이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mpathy	공감	fellow feeling	—
widespread	널리 퍼진	prevalent	rare
yearn for	그리워하다, 갈망하다	long for	—
counterpart	상대, 대응하는 사람	equivalent	—
undocumented	서류 미비의	unregistered	documented
stoke	부추기다	fuel	dampen
vivid	생생한	graphic	dull
portrayal	묘사	depiction	—
arouse	불러일으키다	evoke	suppress
inflict A on B	B에게 A를 가하다	impose	spare
slimy	미끈거리는	slippery	—
resistance	저항	opposition	acceptance
adverse	해로운, 불리한	harmful	beneficial
fatally	치명적으로	lethally	—

내용 일치 오바마 = 당선 직후 한 소녀에게 · 공감이 부족하다 = 널리 퍼진 견해 · 『Against Empathy』 = 2016년, 예일 대학 심리학자 폴 블룸 · 충격 · 클린턴의 패배 원인 = 분석가들의 견해(저자의 단정이 아님) · 러스트 벨트 유권자 = 제조업 강국

시절을 그리워함 · 멕시코 · 중국 노동자 = 일자리가 없으면 더 어려움 · 케이트 스타인리 =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살해됨 · 트럼프는 낯선 이를 구한 이민자 사례는 말하지 않음(보도는 됨) · 새끼 물범 > 닭(고통은 닭이 훨씬 큼) · 로봇 · 물고기 = 고통의 증거 많음(밸컴) · 백신 =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믿어지는' 소수의 아이 · 수백만 부모 · 수백 명 발병. **밑줄 의미** it also has a darker side = 공감이 공감하는 대상 밖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면 — 반이민 정서 · 동물 · 백신 사례로 이어짐 / cold, slimy, and unable to scream = 물고기가 고통을 느껴도 공감을 끌어낼 겉모습이 없다는 것 / 32쪽 ¶2 who would be even worse off = 멕시코 · 중국 노동자 / ¶3 He did not … offer = 트럼프 / ¶4 they know = 사람들.

> **한 줄 요약** 공감이 부족하다는 통념과 달리, 공감은 누구에게 공감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을 외면하게 만들고, 생생한 한 사례나 겉모습에 끌려 더 큰 고통과 피해를 놓치게 한다.

1-4 공감이 낳는 불공정, 연민과 이성이라는 저자의 답 33쪽 ¶1 ~ ¶7

원문 위치 원서 33쪽 ¶1 ~ ¶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3쪽 ¶1 첫 문장	Empathy can make us act unjustly.	요약문 · 주제문
▲	33쪽 ¶1 셋째 문장	Some were told to try to be as objective as possible, while others were told to imagine	be told to V · as ~ as possible
▲	33쪽 ¶1 넷째 문장	ahead of other children who had been assessed as having higher priority	과거완료 수동 · assess A as
★	33쪽 ¶1 다섯째 문장	Three-quarters of those told to imagine … compared to only one-third	숫자 — 내용 일치 · 요약문
◆	33쪽 ¶2 첫 문장	"One death is tragedy; a million is a statistic."	밑줄 의미: 숫자가 크면 무뎌진다
◆	33쪽 ¶2 셋째 문장	without giving rise to "numerical numbness"	밑줄 의미 1순위
▲	33쪽 ¶2 넷째 문장	it's hard to think of anything more important than helping everyone to see the larger picture	부정의 뜻 + 비교급 = 최상급 뜻
★	33쪽 ¶3 첫 문장	To be against empathy is not to be against compassion.	요지 · 빈칸 후보
★	33쪽 ¶3 둘째 문장	Matthieu Ricard, the Buddhist monk sometimes described as "the happiest man on earth"	인물 — 서답형 후보
▲	33쪽 ¶3 셋째 문장	she was surprised to see no activity in the areas of his brain normally active	감정 원인 to V · 형용사 후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3쪽 ¶3 넷째 문장	he found it unpleasant and draining	True/False 뒤집기 후보
▲	33쪽 ¶4 첫 문장	starting with someone close to the meditator and then moving outward to strangers	분사구문 병렬
◆	33쪽 ¶5 둘째 문장	has led it to downplay the role of reason in our lives	지칭: it = psychological science
▲	33쪽 ¶6 둘째 문장	is harder to publish, much less publicize	much less = 하물며 ~는
◆	33쪽 ¶6 셋째 문장	psychology has an inbuilt bias against the view	밑줄 의미: 이성을 낮추는 구조적 편향
★	33쪽 ¶7 둘째~셋째 문장	equally likely to motivate us to do what is wrong … our ability to reason has a crucial role	저자의 주장 · 통합 사고

내용

공감은 우리를 불공정하게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한 실험의 참가자들은 말기 환자인 아이의 인터뷰를 들었다. 일부는 되도록 객관적이 되라는 말을, 다른 이들은 그 아이가 느끼는 것을 상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 그다음 모두에게,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평가된 다른 아이들을 앞질러 이 아이를 치료 대기 명단의 앞쪽으로 옮기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아이의 느낌을 상상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의 4분의 3이 그렇게 해 달라고 했지만, 객관적이 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3분의 1만 그렇게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고, 백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 공감이 개인에게 지나치게 호의적이게 만든다면, 큰 숫자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을 무디게 한다. 오리건에 있는 비영리 단체 디시전 리서치(Decision Research)는 ArithmeticofCompassion.org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숫자 무감각'을 일으키지 않고 대규모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생생한 개인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공공 정책에 영향을 주는 시대에, 모든 사람이 더 큰 그림을 보도록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떠올리기 어렵다. 공감에 반대한다는 것이 연민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 블룸은 『Against Empathy』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에서, 때로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는 불교 승려 마티유 리카르에게서 공감과 연민의 차이를 배운 이야기를 한다. 신경과학자 타니아 싱어(저자와는 친척이 아니다)가 리카르의 뇌를 촬영하면서 '연민 명상'을 해 달라고 하자, 사람들이 남의 고통에 공감할 때 보통 활발해지는 뇌 영역에서 아무 활동도 보이지 않아 놀랐다. 리카르는 요청을 받으면 남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불쾌하고 진이 빠지는 일로 여겼고, 반면 연민 명상은 '강한 친사회적 동기와 이어진 따뜻하고 긍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타니아 싱어는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명상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서 시작해 낯선 사람으로 넓혀 가며 여러 사람을 친절하게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연민 명상을 훈련시켰다. 이런 훈련은 더 친절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민 명상은 때로 '인지적 공감'이라 불리는 것에 가깝다. 감정이 아니라 남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블룸의 책이 전하는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다. 심리학이라는 과학이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이성이 하는 역할을 낮춰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중하게 따졌다고 여겨지는 선택과 태도가 벽 색깔, 방 냄새, 손 소독제 디스펜서 같은 무관한 요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연구는 심리학 학술지에 실리고 대중 매체의 머리기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련된 증거에 바탕을 두고 결정한다는 연구는 학술지에 싣기가 더 어렵고, 널리 알리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심리학에는 우리가 분별 있게 결정한다는 견해에 맞서는 편향이 처음부터 들어 있다. 저자는 이성의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블룸의 견해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윤리의 이해와 맞는다고 말한다. 공감과 다른 감정은 흔히 우리를 옳은 일로 이끌지만, 그른 일로 이끌 가능성도 똑같이 크다.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추론 능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법

- **Some were told to try to be as objective as possible, while others were told to imagine what the child feels** : tell + O + to V의 수동 = be told to V. as ~ as possible = 되도록 ~하게. while = 대조(반면). what the child feels = 관계대명사 what절(imagine의 목적어).
- **All were then asked if they wanted to move the child up the waiting list for treatment, ahead of other children who had been assessed as having higher priority** : ask + O + if절의 수동 = be asked if(~인지 질문받다). had been assessed = 과거완료 수동(질문받기 전에 평가된 일). assess A as B = A를 B로 평가하다 → be assessed as + 동명사.
- **Three-quarters of those told to imagine what the child feels made this request, compared to only one-third of those told to try to be objective** : those (who were) told =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과거분사 후치). 분수 + of + 복수 명사 → 복수 취급. compared to = ~와 비교하면.
- **If empathy makes us too favorable to individuals, large numbers numb the feelings we ought to have** : make + O + 형용사 보어(favorable). numb = 동사(무디게 하다). the feelings (that) we ought to have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ought to = ~해야 한다(의무).
- **In an age in which vivid personal stories go viral and influence public policy, it's hard to think of anything more important than helping everyone to see the larger picture** :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 when). 가주어 it + 진주어 to think. 부정의 뜻(hard) + anything + 비교급 than = 무엇보다 중요하다(최상급 뜻). help + O + (to) V.
- **To be against empathy is not to be against compassion** : 주어 to부정사 + is not + 보어 to부정사 = A하는 것이 곧 B하는 것은 아니다. be against = ~에 반대하다. 공감과 연민을 구별하는 블룸의 논점.
- **When the neuroscientist Tania Singer ... asked Ricard to engage in "compassion meditation" while his brain was being scanned, she was surprised to see no activity in the areas of his brain normally active when people empathize with the pain of others** : ask + O + to V. was being scanned = 과거진행 수동(촬영되는 동안). be surprised to V = ~하고 놀라다(감정의 원인). normally active = 형용사구 후치(the areas which are normally active).
- **Research showing that people make decisions based on relevant evidence is harder to publish, much less publicize** : 주어 Research(단수, showing ~이 후치 수식) → is. be hard to V = ~하기 어렵다(주어가 publish의 의미상 목적어). much less = 하물며 ~는 더욱 아니다(부정의 뜻 뒤). based on = ~에 근거한.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justly	부당하게	unfairly	fairly
objective	객관적인	impartial	subjective
terminally ill	말기 환자인	dying	—
priority	우선순위	precedence	—
numb (v.)	무디게 하다	dull	sharpen
give rise to	일으키다	cause	prevent
go viral	널리 퍼지다	spread rapidly	—
draining	진이 빠지는	exhausting	refreshing
pro-social	친사회적인	altruistic	antisocial
downplay	낮춰 보다, 축소하다	minimize	emphasiz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rrelevant	무관한	unrelated	relevant
publicize	널리 알리다	advertise	conceal
inbuilt	내재된	inherent	acquired
crucial	결정적인	vital	trivial

내용 일치 실험 = 말기 환자인 아이의 인터뷰 · 객관적이 되라 vs 아이의 느낌을 상상하라 · 우선순위가 더 높게 평가된 아이들보다 앞으로 · 상상 집단 4분의 3 vs 객관 집단 3분의 1 · Decision Research = 오리건의 비영리 단체 · '숫자 무감각' 없이 정보를 전하는 능력 · 공감 반대 ≠ 연민 반대 · 리카르 = 불교 승려, '때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림 · 타니아 싱어 = 신경과학자, 저자와 친척 아님 · 연민 명상 중 공감 영역 활동 없음 · 리카르 = 공감은 불쾌하고 지침, 연민은 따뜻하고 긍정적 · 비명상가 훈련 = 가까운 사람 → 낯선 이 · 친절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may) · 무관한 요인 = 벽 색깔 · 방 냄새 · 손 소독제 디스펜서 · 블룸의 이성관 = 저자가 옳다고 보는 윤리의 이해와 맞음. **밑줄 의미** One death is tragedy; a million is a statistic = 한 사람의 죽음에는 마음이 움직이지만 수가 커지면 숫자로만 느껴진다는 것 / numerical numbness = 큰 숫자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이 무뎌지는 상태 / an inbuilt bias = 이성적 결정을 보여 주는 연구는 덜 실리고 덜 알려지는 심리학 연구 방식의 편향 / 33쪽 ¶3 she = 타니아 싱어, he found it = 리카르 / ¶5 it(has led it) = 심리학이라는 과학.

> **한 줄 요약** 공감은 한 사람에게 치우쳐 불공정을 낳고 큰 숫자 앞에서는 무뎌지므로, 블룸은 공감과 연민을 가르며 이성의 역할을 되살리고, 저자는 감정이 그른 일로도 똑같이 이끄는 만큼 윤리적 결정에서 이성이 결정적이라고 본다.

1-5 물음과 고전의 대립 – 이성의 우위인가, 정념의 노예인가 34쪽 ¶1 ~ 35쪽 ¶1

원문 위치 원서 34쪽 ¶1 ~ 35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4쪽 ¶1	Can taking a philosophy class … lead students to act more ethically?	중심 물음 – 제목 · 요지
▲	34쪽 ¶1	Can taking a philosophy class … lead students to act	동명사 주어 + lead + O + to V
★	34쪽 ¶2 셋째 문장	the role that reason plays in forming our ethical judgments and determining what we do	빈칸 후보 · 동명사 병렬
★	34쪽 ¶3 첫 문장	Plato, in the Phaedrus, uses the metaphor of a chariot pulled by two horses	인물 · 책 – 일치 후보
▲	34쪽 ¶3 첫 문장	one represents rational and moral impulses, the other irrational passions or desires	one … the other + 동사 생략
▲	34쪽 ¶3 셋째 문장	harmony is to be found under the supremacy of reason	be to V(가능)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4쪽 ¶4 첫 문장	In the eighteenth century, David Hume argued that this picture … is misleading	시대 · 인물 — 서답형
◆	34쪽 ¶4 셋째 문장	"the slave of the passions"	밑줄 의미 1순위
▲	34쪽 ¶5 둘째 문장	Among what he called passions are our fellow-feeling or sympathy for others	부사구 문두 → 동사 · 주어 도치
◆	34쪽 ¶5 셋째 문장	these "calm passions" and our more violent and often imprudent passions	밑줄 의미 · 어휘 반전 imprudent ↔ prudent
▲	34쪽 ¶6 둘째 문장	uses a metaphor reminiscent of Plato, but in support of a view closer to Hume	형용사구 후치 수식 · 대조
◆	34쪽 ¶6 둘째 문장	"the rider's job is to serve the elephant"	밑줄 의미: 이성은 감정 · 직관을 섬긴다
★	34쪽 ¶6 셋째 문장	the elephant is the other 99% of our mental processes, mostly our emotions and intuitions	숫자 — 내용 일치
◆	34쪽 ¶7 첫 문장	post hoc rationalization of our automatic, intuitive responses	밑줄 의미 · 지칭 him = 하이트
▲	34쪽 ¶7 셋째 문장 ~ 35쪽 첫 줄	We can't just put moral knowledge into our students' heads, and expect them to implement	can't just A and B
★	35쪽 ¶1 둘째 문장	behave no better than professors … nor are they more ethical than	no better than / nor + 도치

내용

철학 수업, 더 구체적으로는 실천 윤리학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이 더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될까? 실천 윤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이 물음의 답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 수업을 들을까 생각하는 학생에게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물음은 더 넓은 철학적 의미도 지닌다. 그 답이, 우리의 윤리적 판단을 형성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 정하는 데 이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오래되고 근본적인 물음을 밝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Phaedrus』에서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의 비유를 쓴다. 한 마리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충동을, 다른 한 마리는 비이성적인 정념이나 욕망을 나타낸다. 마부의 역할은 두 말이 한 팀으로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영혼이 정념과 이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화는 이성이 우위에 설 때 이루어진다는 것도 분명히 한다. 18세기에 데이비드 흄은 이성과 정념이 싸운다는 이 그림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성만으로는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유명한 말대로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흄은 '정념'을 오늘날보다 넓은 뜻으로 썼다. 그가 정념이라 부른 것에는 남에 대한 동료 감정이나 공감, 그리고 자신의 장기적 이익에 대한 관심도 들어 있다. 흄이 보기에, 다른 철학자들이 이성과 감정의 갈등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이런 '차분한 정념'과, 더 격렬하고 흔히 경솔한 정념 사이의 갈등이다. 흄의 이성관과 비슷한 견해가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 영향력이 크다. 『The Happiness Hypothesis』와 『The Righteous Mind』를 쓴 조너선 하이트는 플라톤을 떠올리게 하는 비유를, 그러나 흄에 더 가까운 견해를 지지하려고 쓰면서, 그가 윤리에 대한 사회적 직관주의 관점이라 부르는 것을 설명한다. 그는 『The Righteous Mind』 첫 쪽에 '마음은 코끼리 위의 기수처럼 나뉘어

있고, 기수의 일은 코끼리를 섬기는 것'이라고 쓴다. 하이트의 비유에서 기수는 우리가 통제하는 정신 과정, 주로 의식적 추론이고, 코끼리는 나머지 99%의 정신 과정, 주로 감정과 직관이다. 하이트는 연구를 통해 도덕적 추론을 대체로 자동적 · 직관적 반응을 사후에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윤리적 행동을 기르는 직접적인 방법, 특히 교실에서의 직접 교육에 회의적이 되었다고, 학생들 머리에 도덕 지식을 집어넣기만 하고 교실을 나선 뒤 그 지식을 실천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쓴다. 하이트는『The Righteous Mind』에서 철학자 에릭 슈비츠게벨(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과 조슈아 러스트(스테트슨 대학)의 연구를 근거로 든다. 두 사람에 따르면 여러 윤리적 문제에서 윤리학을 전공하는 철학 교수는 다른 분야의 철학 교수보다 더 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철학을 전혀 다루지 않는 교수보다 더 윤리적이지도 않다. 윤리학을 연구하는 교수조차 다른 분야의 동료보다 더 윤리적이지 않다면, 윤리적 추론은 사람들을 더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할 힘이 없다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 아닐까?

어법

- **Can taking a philosophy class—more specifically, a class in practical ethics—lead students to act more ethically?** : 동명사 주어(taking a philosophy class) + 조동사 의문문. lead + O + to V = O가 ~하게 이끌다. 대시 사이 = 앞 명사를 구체화하는 동격.
- **the answer could shed light on the ancient and fundamental question of the role that reason plays in forming our ethical judgments and determining what we do** : of = ~에 관한(이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물음).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plays의 목적어 = role). play a role in -ing = ~하는 데 역할을 하다 → in 뒤 동명사 forming과 determining 병렬. what we do = 관계대명사 what절.
- **one represents rational and moral impulses, the other irrational passions or desires** : 둘 가운데 one … the other ~ = 하나는 … 나머지 하나는 ~. 두 번째 절은 반복되는 동사 represents를 생략(the other represents irrational …).
- **he also makes it clear that harmony is to be found under the supremacy of reason** : make it clear that = 가목적어 it + 진목적어 that절. be to V = 예정 · 가능 · 당위를 나타내는 be to 용법(여기서는 '찾아질 수 있다'). under the supremacy of = ~의 우위 아래.
- **Among what he called passions are our fellow-feeling or sympathy for others, and our concern for our own long-term interests** : 범위의 부사구(Among ~)가 문장 앞 → 동사 + 주어 도치(are + 주어). 주어가 둘(fellow-feeling or sympathy / concern)이라 복수 동사 are. what he called passions = call + O + C에서 O가 what으로(그가 정념이라 부른 것).
- **Jonathan Haidt … uses a metaphor reminiscent of Plato, but in support of a view closer to Hume, to illustrate what he calls the social intuitionist perspective on ethics** : reminiscent of = ~을 떠올리게 하는(형용사구 후치 수식). in support of = ~을 지지하여. closer to = 형용사 비교급 후치. to illustrate = 목적의 to 부정사. what he calls ~ = 그가 ~라고 부르는 것.
- **We can't just put moral knowledge into our students' heads, and expect them to implement that knowledge after they leave the classroom** : can't just A and B = A만 하고 B를 기대할 수는 없다(just = 그저). put A into B = A를 B에 넣다. expect + O + to V. after + S + V: 시간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leave).
- **On a range of ethical issues, Schwitzgebel and Rust show, philosophy professors specializing in ethics behave no better than professors working in other areas of philosophy; nor are they more ethical than professors who don't work in philosophy at all** : Schwitzgebel and Rust show = 삽입절. specializing · working = 현재분사 후치. no better than = ~보다 전혀 낫지 않은. nor + be동사 + 주어 = ~도 또한 아니다(도치). not … at all = 전혀 ~ 않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ractical ethics	실천 윤리학	applied ethics	—
significance	의미, 중요성	importance	insignificance
metaphor	비유, 은유	figure of speech	—
impulse	충동	urge	—
composite	합성물	blend	—
supremacy	우위, 지배	dominance	inferiority
misleading	오해를 부르는	deceptive	accurate
imprudent	경솔한	rash	prudent
contemporary	현대의	modern	ancient
reminiscent of	~을 떠올리게 하는	suggestive of	—
intuition	직관	instinct	reasoning
post hoc	사후의	after the fact	prior
rationalization	합리화	justification	—
skeptical	회의적인	doubtful	convinced

내용 일치 중심 물음 = 실천 윤리학 수업이 학생을 더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하는가 · 더 넓은 의미 = 이성이 판단과 행동에서 하는 역할 · 플라톤『Phaedrus』= 두 말이 끄는 마차 · 한 말 = 이성적 · 도덕적 충동, 다른 말 = 비이성적 정념 · 욕망 · 조화 = 이성의 우위 아래 · 흄 = 18세기, 이성과 정념의 싸움이라는 그림은 잘못 · 이성만으로는 의지에 영향 못 줌 · 정념 = 오늘날보다 넓은 뜻(동료 감정 · 공감 · 장기적 이익) · 하이트 = 플라톤을 떠올리게 하는 비유 + 흄에 가까운 견해 · 기수 = 의식적 추론, 코끼리 = 나머지 99%(주로 감정과 직관) · 슈비츠게벨(UC 리버사이드) · 러스트(스테트슨 대학) = 윤리학 교수도 더 윤리적이지 않음 · 마지막 물음 = 이 연구가 던지는 도전(저자의 결론이 아님). **밑줄 의미** the slave of the passions = 이성은 스스로 의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정념에 봉사할 뿐이라는 흄의 견해 / the rider's job is to serve the elephant = 의식적 추론은 감정과 직관을 이끌기보다 뒤따라 정당화한다는 것 / post hoc rationalization = 이미 직관이 내린 결론을 나중에 그럴듯하게 꾸미는 추론 / 34쪽 ¶4 he thought = 흄 / ¶7 him = 하이트 / 35쪽 첫 줄 them = 학생들.

> **한 줄 요약** 윤리 수업이 사람을 더 윤리적으로 만드는가라는 물음은 이성의 역할을 묻는 물음이며, 이성의 우위를 말한 플라톤과 달리 흄과 하이트는 이성을 정념과 직관에 봉사하는 것으로 보고, 윤리학 교수도 더 윤리적이지 않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는 듯 보인다.

1-6 저자의 의심과 두 실험 – 교실이 식단을 바꾸다 35쪽 ¶2 ~ 36쪽 ¶1

원문 위치 원서 35쪽 ¶2 ~ 36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5쪽 ¶2 첫~둘째 문장	Perhaps. Yet, despite the evidence, I was not entirely convinced.	밑줄 의미: 부분 부정 – 저자의 전환
●	35쪽 ¶2 셋째 문장	I had a lot of anecdotal evidence	어휘 반전: anecdotal ↔ systematic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35쪽 ¶2 넷째~다섯째 문장	Some became vegetarian or vegan. Others began donating … a few changed their career plans	내용 일치 — some · others · a few
▲	35쪽 ¶3 첫 문장	to test, more rigorously than had ever been done before, whether a class … could change what students eat	than + 과거완료 수동 · whether절
★	35쪽 ¶3 둘째 문장	Brad Cokelet, a philosophy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Kansas … 1,143 students	인물 · 숫자 — 서답형 후보
▲	35쪽 ¶3 셋째 문장	were required to read a philosophical article defending vegetarianism, followed by a small group discussion	be required to V · followed by
★	35쪽 ¶4 둘째 문장	nearly 6,000 food purchases from 476 students	숫자 바꿔치기 주의(1,143 vs 476)
★	35쪽 ¶5 첫 문장	a decline, from 52% to 45%, in meat purchases	숫자 — 서답형 1순위
★	35쪽 ¶5 둘째 문장	There was no change in the level of meat purchases in the charitable giving group	True/False 뒤집기 후보
▲	35쪽 ¶6 넷째 문장	the video—which would have appealed to students' emotions more than their reason	계속적 which + would have p.p.
★	35쪽 ¶7 ~ 36쪽 첫 줄	published in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in 2021 … from 51% to 42%	숫자 — 52→45%와 혼동 주의
▲	36쪽 첫 줄	The decline did appear to be more marked … but there was also a detectable change	강조 did + appear to V
★	36쪽 첫 줄	the outbreak of COVID-19 closed the campus before we could complete	내용 일치 — 지속 기간은 미확인
★	36쪽 ¶1 둘째~셋째 문장	not dramatic, but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 can change what students eat	저자의 결론 · 제목 · 요약

내용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수긍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실천 윤리학 수업이 적어도 몇몇 학생의 삶을 꽤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일화적 증거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떤 학생은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되었고, 어떤 학생은 저소득 국가의 극빈층을 돕는 기부를 시작했으며, 몇몇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더 많이 기여하려고 진로 계획을 바꾸었다. 2017년 슈비츠게벨은 고기 먹기의 윤리에 관한 수업이 학생들이 먹는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전 어느 때보다 엄밀하게 시험해 볼 기회를 저자에게 제안했다. 저자와 슈비츠게벨은 캔자스 대학 철학 교수

브래드 코클렛과 함께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의 학생 1,143명이 참여한 연구를 진행했다. 학생 절반은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철학 논문을 읽어야 했고, 이어서 소집단 토론을 했으며, 고기를 피하자고 주장하는 영상을 볼 수도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대조군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기부에 관한 비슷한 자료를 받고 토론했다. 연구진은 교내 식당 카드로 두 집단이 수업 전후에 산 음식을 알아보았고, 476명의 약 6,000건 구매 자료를 얻었다.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 학생의 구매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결과는 고기 윤리 집단의 고기 구매가 52%에서 45%로 줄어든 것이었고, 줄어든 구매율은 수업 뒤 몇 주 동안 이어졌다. 기부 집단의 고기 구매 수준에는 변화가 없었다(이 학생들이 기부를 더 했는지는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이 연구는 2020년 심리학의 대표적인 동료 심사 학술지 『Cognition』에 실렸지만 또 다른 물음을 낳았다. 결과가 되풀이될까, 효과는 얼마나 갈까, 이성보다 감정에 더 호소했을 영상에 결과가 얼마나 기댔을까? 그래서 연구진은 비슷한 방식으로 연구를 한 번 더 했는데, 이번에는 무작위로 고른 절반의 학생에게만 영상을 보여 주었다. 2021년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에 실린 이 두 번째 연구에서도 고기 먹기의 윤리를 토론한 집단의 고기 먹기가 51%에서 42%로 뚜렷이 줄었고, 기부를 토론한 학생들에게는 변화가 없었다. 감소는 영상을 본 집단에서 더 두드러져 보였지만, 영상 없이 고기 윤리를 토론한 집단에서도 알아볼 만한 변화가 있었다. 아쉽게도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아보려던 부분을 마치기 전에 코로나19가 퍼져 캠퍼스가 문을 닫았다. 저자가 알아본 한, 이 두 연구는 대학 수준의 철학 수업이 학생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실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통제해 조사한 최초의 연구다. 고기 먹기의 감소는 극적이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교실에서의 윤리적 추론은 학생들이 먹는 것을 바꿀 수 있다.

어법

- **Yet, despite the evidence, I was not entirely convinced** : not entirely = 부분 부정(완전히 ~한 것은 아니다; '전혀 아니다'가 아님). despite + 명사(전치사). be convinced = 확신하다.
- **Schwitzgebel offered me an opportunity to test, more rigorously than had ever been done before, whether a class on the ethics of eating meat could change what students eat** : offer + IO + DO. to test = opportunity를 꾸미는 to부정사. 삽입된 비교 = than + 과거완료 수동(이전에 이루어진 어떤 시험보다 엄밀하게; 주어 없는 비교절). test의 목적어 = whether절, 그 안의 what students eat = 관계대명사 what절.
- **Half the students were required to read a philosophical article defending vegetarianism, followed by a small group discussion with the option of watching a video advocating avoiding meat** : Half (of) the students + 복수 동사 were. be required to V = ~해야 했다. defending · advocating = 현재분사 후치. followed by = 그 뒤에 ~이 이어졌다(분사구문). advocate + 동명사(avoiding).
- **The purchases were identified with students who had, or had not, read and discussed the ethics of eating meat, but the data we received were made anonymous so that we could not identify any named student's purchases** : had, or had not, read and discussed = had에 read와 discussed가 함께 걸림(or had not은 삽입). the data (that) we receive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data는 복수 취급 → were. make + O + 형용사(anonymous)의 수동 = be made anonymous. so that + S + could not = ~할 수 없도록.
- **To what extent did our results depend on having the students watch the video—which would have appealed to students' emotions more than their reason?** : To what extent = 어느 정도까지(의문사구 문두 + did 도치). depend on + 동명사(having). have + O + 원형(watch) = 사역. which = 계속적 용법(the video). would have p.p. = ~했을 것이다(과거에 대한 추측).
- **The decline did appear to be more marked in those groups that watched the video, but there was also a detectable change in those groups that discussed meat ethics without the video** : did appear = 강조의 do(확실히 ~해 보였다). appear to be = ~인 것 같다(단정 아님). marked = 두드러진(형용사).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groups).
- **These two studies are, as far as we have been able to discover, the first properly controlled investigations, in the real world and not in a laboratory setting, of the impact of university-level philosophy classes on student behavior** : as far as + S + V = ~하는 한(범위 한정 — '최초'를 단정하지 않음). investigations와 of the impact

사이에 삽입구(in the real world and not in a laboratory setting)가 끼어 있다. the impact of A on B = A가 B에 미치는 영향.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vinced	확신하는	persuaded	doubtful
anecdotal	일화적인	informal	systematic
rigorously	엄밀하게	strictly	loosely
defend	옹호하다	champion	attack
advocate (v.)	주장하다, 옹호하다	promote	oppose
control group	대조군	comparison group	experimental group
anonymous	익명의	unnamed	identified
maintain	유지하다	sustain	abandon
replicate	되풀이하다, 재현하다	reproduce	—
marked	두드러진	noticeable	slight
detectable	알아볼 수 있는	discernible	imperceptible
significant	유의한, 의미 있는	meaningful	negligible

내용 일치 저자의 태도 = '완전히' 수긍하지는 않음(부분 부정) · 일화적 증거 = 채식 · 비건 / 극빈층 기부 / 진로 변경(몇몇) · 2017년 = 슈비츠게벨의 제안 · 브래드 코클렛 = 캔자스 대학 · 참여 1,143명(UC 리버사이드) · 실험군 = 채식 옹호 논문 + 소집단 토론 + 영상 선택 · 대조군 = 기부에 관한 비슷한 자료와 토론 · 식당 카드 = 476명의 약 6,000건(익명) · 52% → 45% · 몇 주 유지 · 기부 집단 = 고기 구매 변화 없음(기부를 더 했는지는 모름) · 2020『Cognition』· 두 번째 연구 = 영상은 무작위 절반 · 2021『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51% → 42% · 영상 본 집단에서 더 두드러져 '보임' · 영상 없이도 변화 · 지속 기간 = 코로나19로 확인 못 함 · '최초' = 저자가 알아본 한(as far as). **밑줄 의미** Perhaps. Yet … not entirely convinced = 앞 연구의 힘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는 전환 / not dramatic, but statistically significant =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는 절제된 결론 / 35쪽 ¶3 They received = 대조군 학생들 / ¶6 it gave rise to = 첫 연구 / 36쪽 첫 줄 we could complete = 저자와 공동 연구자들.

> **한 줄 요약** 윤리학 교수 연구에도 수긍하지 않은 저자는 두 차례의 통제된 현장 연구에서 고기 윤리를 토론한 학생들의 고기 구매가 52%→45%, 51%→42%로 줄어든 것을 근거로, 교실의 윤리적 추론이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thics in the Real World [Vol. 1 EMPATHY]

범위	Morality Pill · The Empathy Trap · Can Ethics Be Taught? (원서 PDF 29~36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ompassion meditation resembles 'cognitive empathy', as it is sometimes called, since it involves thinking about others rather than sharing their feelings. Paul Bloom adds that psychology, by the way it does its research, has come to underrate reason: findings that trivial things like a wall's colour sway our choices make headlines, while findings that people weigh relevant evidence are harder to publish. I share Bloom's more hopeful view of reason. Emotions like empathy can push us toward right action, but just as easily toward wrong action. In ethical choices, careful reasoning plays a decisive part.

① Train yourself to feel others' pain more deeply.
② Psychologists must stop publishing surprising results.
③ Reasoning must play a crucial role in ethical decisions.
④ Emotions are a more reliable moral guide than reason.
⑤ Compassion depends mainly on shared feeling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first study, published in the leading journal Cognition in 2020, raised new questions. Would the findings hold up in a repeat study? How long would the change last? And how much of it came from the video, which probably appealed more to feelings than to reasoning? So a second, similar study was run, this time showing the video to only a randomly chosen half of the students. Published in 2021, it again found a clear fall, from 51% to 42%, in meat-eating among students who had discussed meat ethics, but none among those who had discussed charity. The fall seemed larger with the video, yet it appeared even without it.

① Videos, Not Arguments, Change Our Diets
② A Class Discussion That Changed What Students Ate
③ Why Meat Ethics Classes Failed to Last
④ Charity Talks Cut Meat-Eating Too
⑤ Lab Tests Prove That Reason Rules Emotion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alf a century ago, in his futuristic novel A Clockwork Orange, Anthony Burgess described a brutal gang leader who is treated so that he can no longer be violent. After Stanley Kubrick's 1971 film of the book, many insisted that robbing anyone of free will could never be justified, however terrible the violence prevented. A morality pill would surely face the same complaint. Yet if brain chemistry really shapes our moral behavior, it makes no difference to our freedom whether that chemistry was set by nature or by a doctor. Either such chemical differences between people fit with free will, or, for some moral acts at least, we never had free will anyway.

① Brain chemistry makes punishment useless.
② A morality pill should be banned to protect free will.
③ Changing brain chemistry with medicine need not make us less free.
④ Kubrick's film proved that drugs can cure violence.
⑤ People are born good or bad and cannot change.

4. 밑줄 친 the slave of the passion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Plato pictured the soul as a chariot drawn by two horses, one for our rational, moral impulses and one for unruly passions. For Plato, harmony comes only when reason is in command. David Hume, writing in the eighteenth century, rejected this picture of reason battling the passions. On its own, he held, reason cannot move the will; it is, in his famous phrase, the slave of the passions. His 'passions' included fellow-feeling and care about our future interests, so what others saw as reason fighting emotion was, for him, a struggle between these calm passions and wilder, reckless ones.

① Reason can tame the passions if trained well.
② Reason alone does not move us; it serves our feelings and desires.
③ Passions should be obeyed without thought.
④ Reason and passion are equal partners.
⑤ The calm passions are reason's enemies.

5. 밑줄 친 numerical numbnes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s an old saying suggests, a single death strikes us as a tragedy, while a million deaths read like a mere statistic. If empathy makes us lean too far toward single individuals, big numbers have the opposite effect: they dull the feelings we should have. Decision Research, a nonprofit in Oregon, set up the website ArithmeticofCompassion.org to help people convey facts about problems affecting huge populations without causing numerical numbness. Today, when moving stories about one person spread rapidly online and shape public policy, few tasks matter more than helping everyone see the bigger picture.

① a habit of exaggerating how many people are affected
② a loss of feeling when suffering is expressed in large figures
③ difficulty in doing basic arithmetic
④ a fear of reading statistics in the news
⑤ too much sympathy for a single victim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Most discussion of such experiments overlooked one thing: some people acted rightly. A study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about which the authors have strong ethical doubts, may help explain why. Researchers took two rats living in the same cage and shut one of them inside a tube whose door could be opened only from outside. The free rats usually worked at the door until ① they got it open. Even when ② they could first eat a whole pile of chocolate, ③ they mostly chose to release ④ their cage-mate. The researchers read these results as proof that rats feel empathy, but if so, ⑤ they also showed that rats differ, since only 23 of the 30 freed their trapped partners.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In 2017, Eric Schwitzgebel gave the author a chance to test, more strictly than ever before, whether teaching the ethics of meat-eating could change what students chose to eat. With Brad Cokelet of the University of Kansas, they ran a study with 1,143 students from the Riverside campu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Half read a philosophy article in favour of vegetarianism and then talked it over in small groups, where they could choose to watch a video urging people to avoid meat. The rest, a control group, read and discussed similar material on giving to the poor. The researchers analysed dining-card data on nearly 6,000 purchases made by 476 students. Meat purchases in the meat ethics group fell from 52% to 45% and stayed lower for a few weeks, while the charity group showed no change.

① 연구 대상은 캔자스 대학의 학생들이었다.
② 실험 집단의 모든 학생은 고기를 피하자는 영상을 보아야 했다.
③ 대조군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기부에 관한 자료를 읽고 토론했다.
④ 연구진은 1,143명 전원의 식당 카드 구매 기록을 분석했다.
⑤ 기부 집단의 고기 구매는 52%에서 45%로 줄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Opposing empathy does not mean opposing compassion. In his book, Paul Bloom tells how he came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rough Matthieu Ricard, a Buddhist monk who is sometimes called the happiest man on earth. The neuroscientist Tania Singer scanned Ricard's brain while he practised compassion meditation and was surprised that the regions usually active when people share another's pain stayed quiet. Ricard could feel others' pain when asked, but he found the experience unpleasant and exhausting; compassion meditation, in contrast, he called a warm, positive state tied to a strong desire to help others. Singer has also coached people who do not meditate to think kindly of a series of people, from someone close out to strangers, which may make them kinder.

① 블룸은 공감과 연민의 차이를 리카르를 통해 알게 되었다.
② 리카르는 때로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린다.
③ 연민 명상 중 리카르의 뇌에서는 공감할 때 활발한 영역이 조용했다.
④ 리카르는 남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을 즐겁고 활력을 주는 일로 여겼다.
⑤ 타니아 싱어는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연민 명상을 가르쳤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A view much like Hume's now carries great weight in psychology. Jonathan Haidt, ① whose books include The Righteous Mind, borrows an image that recalls Plato's chariot but ② uses it to defend a position nearer to Hume's. The mind, he says, is split like a rider sitting on an elephant, and the rider's task is ③ to serve the elephant. In this picture, the rider stands for the mental processes we control, chiefly conscious reasoning, while the elephant stands for the remaining 99%, ④ mostly emotions and intuitions. His research has led him to regard moral reasoning as largely a justification produced after the fact. So he doubts that teachers can simply place moral knowledge in students' heads and expect them ⑤ act on it outside the classroom.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o the notion of a 'morality pill', a drug that makes us likelier to help others, is not as wild as it sounds. Would people take such a pill (A) [to become / becoming] better people? Criminals might be offered, instead of a prison term, an implant that releases a drug (B) [what / that] makes them less likely to harm anyone. To make sure the drug is actually taken, it could be paired with a 'smart pill' carrying a sensor that sends out data once (C) [swallowing / swallowed]. In the same way, governments might start screening the population for those most likely to break the law, offering them the drug and, if they refused, requiring them to wear a tracking device.

	(A)	(B)	(C)
①	to become	what	swallowing
②	to become	that	swallowed
③	becoming	that	swallowed
④	to become	that	swallowing
⑤	becoming	what	swallowed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After his election, Barack Obama told a girl that the world lacked empathy and that her generation should fix this. Because he voiced a ① common view, Paul Bloom's 2016 book Against Empathy came as a shock. How could anyone oppose something that lets us feel what others feel? One way to answer is to ask another question: whom should we feel for? Some analysts suggested that Hillary Clinton lost because she ② lacked empathy for white voters in the Rust Belt. Yet empathy for American workers ③ conflicts with concern for Mexican and Chinese workers, who would suffer even more without jobs. Empathy makes us kinder to those we identify with, but it has a ④ brighter side too. Donald Trump used the case of Kate Steinle, killed by an undocumented immigrant, to ⑤ fuel backing for his policies against immigrant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In The Righteous Mind, Jonathan Haidt backs his position with research by two philosophers, Eric Schwitzgebel and Joshua Rust. Across a range of moral matters, they found, professors who specialize in ethics act no better than philosophers in other fields, and no better than professors outside philosophy altogether. If even ethics specialists behave no more morally than their colleagues, it seems to follow that moral reasoning is _____ to improve how people behave. The author admits this may be so, but he was not fully persuaded. He had plenty of informal evidence that his own ethics classes had deeply changed at least some students: some stopped eating meat, others began giving to the very poor, and a few even changed their careers.

① powerless
② essential
③ bound
④ enough
⑤ the surest way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Only then will we properly understand why moral behavior differs so widely between individuals and whether we can do anything about it.

Sadly, such tests on animals still go on. (①) The authors cite the rat study unwillingly, but it makes one thing clear: what made some rats help and others not must be found within the rats themselves. (②) It seems reasonable to think that humans, too, are spread along a scale of readiness to help. (③) Circumstances can certainly make a huge difference, and so perhaps can moral beliefs, but if people simply differ in their tendency to act morally, we must learn more about those differences as well. (④) Studies of people who have given a kidney to a stranger show that their amygdalas are larger than average and more active when they see someone suffering. (⑤) The amygdala might be reacting to oxytocin, known to encourage care for others, strangers included.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What draws our empathy is often not what deserves it. ① Creatures with large round eyes, such as baby seals, stir far more empathy than chickens, though we cause chickens vastly greater suffering. ② Some people even hesitate to 'hurt' robots that they know feel nothing. ③ Plato compared the soul to a chariot drawn by two horses, one rational and the other driven by passion. ④ Fish, by contrast, cold and slimy and unable to cry out, win little sympathy, although, according to Jonathan Balcombe's book What a Fish Knows, plenty of evidence shows that they feel pain as birds and mammals do. ⑤ In the same way, empathy for a small number of children who were harmed, or are thought to have been harmed, by vaccines fuels much public resistance to vaccination.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Foshan, China, in 2011, a van struck a two-year-old girl, and the driver kept going. For the next seven minutes, over a dozen passers-by went past her, and a second truck struck her before a woman finally moved her aside. She later died in hospital.

(A) Why, then, do some risk their lives for a stranger while others will not even stop to call for help? In the 1960s and the early 1970s, Milgram and Zimbardo suggested that, in certain situations, most of us would willingly do serious harm to innocent people.

(B) Still, people are capable of acting quite differently, and often do. A news search for 'hero saves' regularly turns up bystanders who faced oncoming trains, strong currents or fires to rescue strangers.

(C) Footage of the whole scene was broadcast on television and spread online, causing public outrage. Similar events took place in London in 2004 and elsewhere, where no camera was recording.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mpathy can also lead us into unfairness. In one experiment, participants heard a terminally ill child being interviewed. One group was asked to stay as objective as they could; another was asked to imagine how the child felt. Everyone was then asked whether they would like to move this child up the treatment queue, ahead of other children whose need had been judged greater. Among those who had imagined the child's feelings, three in four made the request; among those who had tried to stay objective, only one in three did.

→ Participants encouraged to (A) _____ with a sick child were far more likely to put that child ahead of others in greater need, showing that empathy can make our decisions (B) _____.

① identify ..... unfair
② identify ..... impartial
③ reason ..... unfair
④ reason ..... impartial
⑤ compete ..... generous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In 2011, a two-year-old girl in Foshan, China, was hit by a van while passers-by walked on. In a University of Chicago study, only 23 of 30 rats set their trapped cage-mates free. People who gave a kidney to strangers turned out to have amygdalas larger than average. In 2016, the Yale psychologist Paul Bloom published Against Empathy. The Buddhist monk Matthieu Ricard said that feeling others' pain was unpleasant and draining for him. Long before, David Hume had called reason the slave of the passions. Finally, in the first classroom study, meat purchases among students who discussed meat ethics fell from 52% to 45%.

<QUIZ>

(1) In what year was the girl in Foshan hit by a van?
Answer for (1): _____

(2) How many of the 30 rats freed their trapped cage-mates?
Answer for (2): _____

(3) Which part of the brain was larger than average in kidney donors?
Answer for (3): _____

(4) Who wrote Against Empathy?
Answer for (4): _____

(5) Is it true or false that Ricard found feeling others' pain pleasant?
Answer for (5): _____

(6) Who called reason the slave of the passions?
Answer for (6): _____

(7) In the first study, to what level did meat purchases fall?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2004	N. 30
B. Plato	O. Matthieu Ricard
C. 42%	P. 23
D. Tania Singer	Q. 476
E. True	R. amygdala
F. 1971	S. Stanley Milgram
G. False	T. 45%
H. David Hume	U. 2011
I. Paul Bloom	V. 2017
J. 51%	W. Jonathan Haidt
K. oxytocin	X. 52%
L. 1,143	Y. Philip Zimbardo
M. Jonathan Balcombe	Z. 2016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2004년 런던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다른 일들도 그래 왔다. (as + 대동사 + 주어 도치)

02 왜 어떤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는가? (be prepared to V / 목적의 to V)

03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Only + 부사 문두 → 도치)

04 옥시토신은 낯선 사람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V / including)

05 폭력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누군가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no matter how + 형용사 / deprive A of B)

06 그것을 바꾸는 것은 너희 세대의 몫이다. (It is up to A to V)

07 크고 둥근 눈을 가진 동물은 닭보다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는 그 닭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한다. (전치사 + 관계대명사 on whom)

08 공감에 반대하는 것이 연민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to부정사 주어 + to부정사 보어)

09 관련 증거에 근거해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연구는 출판하기가 더 어렵고, 널리 알리기는 더욱 어렵다. (be hard to V / much less)

10 그가 정념이라고 부른 것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있다. (부사구 문두 → 도치 / what he called)

11 우리는 학생들의 머리에 도덕 지식을 집어넣기만 하고 그들이 그 지식을 실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can't just A and B / expect + O + to V)

12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한, 이 두 연구는 처음으로 제대로 통제된 조사이다. (as far as + S + V(범위 한정))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포산 사건이 일어난 해 / 다친 아이의 나이	
아이 곁을 지나친 시간 / 지나친 사람 수	
비슷한 일이 일어난 곳과 해	
무고한 이를 해칠 수 있음을 시사한 실험의 두 연구자 / 시기	
착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한 두 연구자 / 대상	
쥐 실험을 한 대학 / 동료를 풀어 준 쥐의 수	
신장 기증자에게서 평균보다 크고 활발한 뇌 부위 / 그것이 반응할 수 있는 물질	
『A Clockwork Orange』의 작가 / 영화 감독과 해	
『Against Empathy』의 저자 · 소속 / 나온 해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살해된 사람 / 『What a Fish Knows』의 저자	
대기 명단 실험에서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한 비율(상상 집단 / 객관 집단)	
숫자 무감각을 다루는 오리건의 비영리 단체 / 웹사이트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기도 하는 승려 / 그의 뇌를 촬영한 신경과학자	
두 말이 끄는 마차의 비유를 쓴 철학자 · 책	
이성을 '정념의 노예'라고 한 철학자 / 시기	

항목	답
코끼리와 기수의 비유를 쓴 사람 / 코끼리가 차지하는 정신 과정의 비율	
윤리학 교수의 행동을 연구한 두 철학자 / 소속	
첫 실험의 해 / 공동 연구자 / 참여 학생 수	
식당 카드 자료(학생 수 / 구매 건수) / 고기 구매 변화	
두 연구가 실린 학술지와 해 / 두 번째 연구의 고기 먹기 변화	

4-3. 통합 사고 문제 – 세 편을 잇는 자리

문제

「The Empathy Trap」에서 저자는 공감과 다른 감정이 흔히 옳은 일을 하게 하지만 그른 일을 하게 할 가능성도 똑같이 크다고 쓰고(33쪽 ¶7), 아이의 느낌을 상상하라는 말을 들은 참가자의 4분의 3이 우선순위가 더 높은 아이들을 제치고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했다는 실험을 들었다(33쪽 ¶1). 「Can Ethics Be Taught?」에서 저자는 이성이 '정념의 노예'라는 흄의 견해와 하이트의 견해를 소개한 뒤(34쪽 ¶4 · ¶6), 고기 먹기의 윤리를 읽고 토론한 학생들의 고기 구매가 줄었다는 두 연구를 내놓았다(35쪽 ¶5 · 36쪽 첫 줄 · 36쪽 ¶1). 「Are We Ready for a "Morality Pill"?」에서는 상황 요인과 (어쩌면) 도덕적 믿음 말고도 사람마다 다른 성향과 뇌의 화학이 도덕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30쪽 ¶2~¶3).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 우리의 능력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 근거를 「The Empathy Trap」과 「Can Ethics Be Taught?」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해당 편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윤리적 결정에서 결정적인 능력: In making ethical decisions, our ability to _____ has a crucial role to play.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